

## 현대·기아차그룹 부품 협력업체 '긴급지원 및 상생협력' 방안 발표

### 사회 공헌 방안 후속 조치

<배경> - 환율 급락, 유가급등 등 경제환경 악화로 인한 부품 협력업체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긴급지원 필요 - '중소기업 협력업체' 와 2,3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필요성 대두 - 완성차 업체와 부품협력 업체의 비용절감 노력과 병행해 협력업체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 필요성.

<주요내용> ▶'중소기업 협력업체' 부품대금 100% 현금 지급 실시 ▶'대기업 협력업체'어음기일 단축(120일→ 60일) → 2, 3차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연쇄효과 유도 ▶신차 금형비 등 개발 투자비 2010년까지 2조 6,300여억원 투입, 품질 기술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 협력업체 품질, 기술개발 지원 강화 → 품질육성기금 500억 조성, 교육훈련 및 정보화 지원 확대 ▶상생협력 관계 강화 및 지속적인 상생협력시스템 구축 → 성과공유 시스템 지속 추진, 상생협력위원회 활성화, 상생협력추진팀 신설 ▶글로벌 품질·기술경쟁력 갖춘 혁신자립형 중소기업 육성 앞장서 현대·기아차 그룹(代表 鄭夢九 會長)은 25일 환율하락과 유가급등 등 최근 급속히악화되고 있는 경제환경으로 인해 부품 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대·기아차의 이번 조치는 최근 환율이 930원대로 급락하고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상회하는 등 기업환경이 급속히 나빠짐에 따라, 현대·기아차 해외공장에 부품하는 부품업체들의 경영수익이 저하되고, 해외 완성체업체에 직수출 하는 경우에도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과 자금흐름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구체 내역 별첨자료 참조 현대·기아차는 최근 환율,유가,원자재 등 3중 악재로 인해 본사의 영업수지도 나빠지고 있지만 부품협력업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지 않고는 중장기적으로 완성차업체 자체의 경쟁토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협력업체 지원책은 현대·기아차가 최근 제시한 사회공헌 방안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특히 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가장 큰 피해가 중소기업 부품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들에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지원효과가 큰 쪽으로 상생방안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중소기업 협력업체' 부품대금 전액 현금 지급 ▲2, 3차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을 위해 '대기업 협력업체' 어음기일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협력업체 품질육성기금 500억 조성 및 교육훈련·정보화 지원 확대 ▲지속적인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팀 신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업체의 인력 및 품질·기술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한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해 당초 예정된 13조원 수준의 직·간접 지원 금액을 2조원 늘려 2010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2조 6,300억원은 향후 신차 금형비 등 협력업체의 개발투자비에 집중 투입된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번 방안을 통해 ▲협력업체 재무구조 개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 ▲협력업체의 근본적인 경영체질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기여

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5월부터 지급될 '중소 협력업체' 부품대금 현금 5조4천억 외에 어음으로 지급되고 있는 잔여금액 3조3천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3차 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대기업 협력업체'에 지급할 현금 9조5천억 외에 어음지급 예정금액 5조1천억을 지급 기일을 120일에서 절반으로 단축한 60일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원가절감 및 부품 국산화를 통한 성과를 협력사에 50% 이상 돌려 주는 등 협력업체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제도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자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조적 핵심역량 강화 ▲경영안정 기반 강화 ▲글로벌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의 창조적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자립, 품질경쟁력, 첨단신기술 지원체제를 강화해 지원키로 했다.

경영안정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안정화 지원시스템 구축, 경영정보 및 인재육성 지원, 선진형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글로벌 생산/판매 지원, 협력사 글로벌 환경대응 지원, 2,3차 협력업체 자생력 강화 추진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상생협력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 본사 내에 상생협력추진팀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